

빈티지 포트 전문가가 되는 방법

다른 클래식 와인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원칙은 최고 생산자, 즉 최고 수준의 와인을 꾸준히 생산해온 이력이 있는 곳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 생산자들은 어떤 빈티지든 훌륭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각 생산자는 나름의 스타일이 있으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 하우스를 선호하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하우스 스타일을 다양하게 즐기는 것 또한 빈티지 포트가 주는 크나큰 즐거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공표된 빈티지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난 50년 동안 '총 공표' 된 해는 1960, 1963, 1966, 1970, 1975, 1977, 1980, 1983, 1985, 1994, 1997, 2000, 2003, 2007, 2011년이었다. 1991년과 1992년도 수준이 매우 높았으나 생산자들의 의견이 갈려 각 포도원의 위치에 따라 일부는 1991년, 일부는 1992년을 택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세기에 가장 좋았던 다른 빈티지에는 1912, 1927, 1945, 1948년이 있다. 이 오래된 빈티지들은 현재 극도로 희귀하며 생산자들로부터도 더는 구할 수 없다.

빈티지 포트는 병 안에서 숙성할수록 계속해 복잡성을 더해간다. 그러나 빈티지 포트를 언제 마실 것인가는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다. 많은 고급 와인 전문가들이 빈티지 포트를 어릴 때, 즉 힘이 좋고 생기가 넘칠 때 마시는 걸 선호한다. 반면 병 안에서 20-30년을 보낸 뒤 미묘한 풍미를 내고 성숙한 복잡성을 띠는 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빈티지 포트와 관련된 전통도 많이 있다. 물론 와인 자체를 즐기고 음미하는 데 필요하지는 않지만, 모든 와인을 통틀어 가장 위풍당당하고 사교적인 이 와인에 즐기는 기쁨을 더해줄 수는 있다.

포트 애호가들이 따르는 한 가지 관습은 언제나 디캔터를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에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에게 와인을 맛볼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오른손을 이용해 디캔터를 붙잡고, 자기 잔을 채운 다음, 왼쪽에 앉은 옆 사람에게 건네는 것이 반대로 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누구 한 사람이 차지하지 않고 디캔터가 계속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누군가 독차지(hog)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디캔터도 있다. '호깃(hoggit)'이라 불리는 이 디캔터는 바닥이 둥글게 솟아 있어 주최자 옆에 놓아둔 나무 받침대로 돌아가기 전까지 테이블에 세워둘 수 없다.

영국에서 여전히 널리 따르는, 빈티지 포트의 가장 유명한 전통 중 하나는 아이가 태어나는 해에 맞춰 빈티지 포트 몇 병을 따로 보관해두는 것이다. 아이가 꽤 나이가 든 이후에도 와인을 마련해둔 사람에게 대한 좋은 추억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전통은 매우 훌륭한 선물이라고 하겠다.

